

11 2023
월호

월간

통신원 PICK!

한류는 지금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연구팀

vol. 10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ISSN 3022-0793

조사 지역 : 총 10개국

- 아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 미주
멕시코, 미국/뉴욕
- 유럽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
- 중동
아랍에미리트
- 오세아니아
호주

조사 방법

2023년 10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통신원 리포트 52건 활용

조사 내용

- 콘텐츠 산업(방송, 영화, 출판, 케이팝)
- 소비재 산업(음식)
- 기타(문화정책)

조사 기간

2023.11.1. ~ 11.14. (2주)

문의

김아영 팀장
(ahyoung@kofice.or.kr / 02-3153-1786)
윤도경 연구원
(doging@kofice.or.kr / 02-3153-1727)

02
2023년 10월 한류 콘텐츠산업 통계

04
한류 콘텐츠산업 주요 현황

07
주목할 만한 한류 연관산업 이슈

08
기타_문화정책

01

2023년 10월 한류 콘텐츠산업 통계

오세아니아

총 2종으로 구성된 BTS 뷔의 <Slow Dancing Remix>, 호주 아이탑차트(iTopChart) 케이팝 부문 1·2위 차지

호주

BTS 뷔의 첫 솔로 앨범 <Layover> 타이틀곡의 리믹스 버전 <Slow Dancing(FRNK Remix)>, <Slow Dancing(Cautious Clay Remix)> 발매(10.23). 10월 마지막 주 호주 아이탑차트 'Top K-Pop Songs Charts'에서 각 1·2위 차지*

* iTopChart(<https://itopchart.com/au/en/top-songs/k-pop/>)



BTS 뷔의 <Slow Dancing Remix>
(BIG HIT MUSC/HYBE, <https://ibighit.com/>)

1. 《Gulf News》(2023. 10. 27). Upcoming K-drama shows and episodes to watch out for, <https://gulfnews.com/entertainment/upcoming-k-drama-shows-and-episodes-to-watch-out-for-1.1698417579728>

JTBC 주말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인기

아시아

말레이시아

넷플릭스 TOP 10 TV(비영어) 부문 3위를 기록한 JTBC 주말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공개(10.7.) 직후 말레이시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1위 기록, 10월 내내 상위권 안착*

* 넷플릭스(<https://www.netflix.com/tudum/top10/malaysia/tv?week=2023-10-29>)

대만

‘대력여자강남순(大力女子姜南順)’으로 공개돼 6주 연속 대만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상위권에 오름*. 강아지를 뜻하는 ‘고우고우(狗狗) 커플’이라는 애칭을 얻은 전작 <힘쎈여자 도봉순>의 출연 배우 박보영과 박형식의 특별출연과 관련해 이목 집중

* 넷플릭스(<https://www.netflix.com/tudum/top10/taiwan/tv?week=2023-11-12>)



넷플릭스 TOP 10 TV(비영어) 부문 3위 <힘쎈여자 강남순>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3-10-22>)

중동

UAE

주요 매체 《걸프 뉴스(Gulf news)》는 “현지 팬들이 <힘쎈여자 강남순>의 다음 에피소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 공개 직후 UAE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3위를 차지한 <힘쎈여자강남순>에 대해 “2017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의 스핀오프작”이라고 소개하고, ‘주목해야 할 한국 드라마’로 꼽음¹

* 넷플릭스(<https://www.netflix.com/tudum/top10/united-arab-emirates/tv?week=2023-10-15>)

02

한류 콘텐츠산업 주요 현황

1. 방송

한류를 소재로 한 멕시코 최초의 드라마 <L-POP>,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평범한 치대생이 케이팝 커버댄스 대회 'K COVER FEST'에 참여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한류 소재의 디즈니플러스(Disney+) 오리지널 멕시코 드라마 <L-POP>이 공개됨(9.27.). 한국에서 태어나 멕시코로 이주한 배우 이산(본명 이범현)과 문지원이 멕시코 국민 여동생 안드레아 데 알바(Andrea De Alba)와 함께 열연해 눈길. 한국인 배우가 비중 있게 출연하는 최초의 멕시코 드라마로 기대가 남다름

파라마운트+ 글로벌 1위 차지하며 미국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몸값>

미국/뉴욕

티빙(TVING) 오리지널 드라마 <몸값(Bargain)>, 글로벌 OTT 파라마운트+(Paramount+) 통해 27개국에 서비스 시작(10.5.). 공개 일주일 만에 TV 프로그램 부문 글로벌 1위를 기록해 미국 언론의 이목이 집중됨.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변승민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세대 <오징어 게임>으로 떠오른 <몸값>의 핵심은 치열한 경쟁, 빈익빈 부익부로 공고해진 계층(사회경제적 지위)을 다루는 데 있다.”고 설명². 《CNN》은 “<몸값>은 삶이 가난하고 계층 간 분열이 많은 사회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결이 같다.”며 “<오징어 게임>에 폭 빠졌던 사람이라면 <몸값>도 만족스러운 선택일 것”이라고 언급³

해외통신원 리포트

멕시코 멕시코 케이팝 팬들의 사랑을 담은 디즈니플러스의 <L-POP> 공개 <https://url.kr/1zghvm>

미국/뉴욕 [언론분석]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몸값>, 이어지는 현지 언론의 리뷰 <https://url.kr/i6r5xk>

2. 《New York Times》(2023. 10. 4). Sex, Thugs and Kidneys: 'Bargain' Bids to Be the Next 'Squid Game', <https://www.nytimes.com/2023/10/04/arts/television/bargain-paramount-plus-korean-drama-squid-game.html?searchResultPosition=1>

3. 《CNN》(2023. 10. 6). Like 'Squid Game,' 'Bargain' trades on the life-is-cheap edge of South Korean drama, <https://www.cnn.com/2023/10/06/entertainment/bargain-review/index.html>

2. 영화

제19회 취리히영화제(9.28.~10.8.) 뉴 월드 뷰 섹션 주빈국으로 선정된 한국

스위스

매년 주빈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의 영화 10여 편을 소개하는 취리히영화제(Zurich Film Festival) 뉴 월드 뷰 섹션(New World View section, Neue Welt Sicht)*에서 2023년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 단편 영화 모음집(Collection of short films)**을 포함해 총 10편의 한국 영화를 상영.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공작새>, <다음 사회>, <미망>, <잠>, <정순>, <콘크리트 유토피아>, <킬링 로맨스>, <화란> 등이 이에 해당. 엄태화 감독은 질의응답을 통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촬영 및 제작 방법,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거문화인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유럽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임

* 그동안 취리히영화제는 뉴 월드 뷰 섹션 주빈국으로 스페인(2022), 튀니지(2021), 프랑스(2020), 콜롬비아(2019), 이탈리아(2018), 헝가리(2017), 멕시코(2016), 이란(2015), 인도(2014), 브라질(2013), 스웨덴(2012), 튀르키예(2011), 호주(2010), 아르헨티나(2009), 이스라엘(2008), 러시아(2007)를 선정

** 김철휘 감독의 <가리워진 길>, 문수진 감독의 <각질>, 김보영 감독의 <버킷>, 강홍주 감독의 <시나브로>, 심규호 감독의 <청년은 살았다>를 묶어 단편 영화 모음집 형태인 'Kurzes aus Korea'로 선보임

해외통신원 리포트

스위스 [문화정책/이슈] 취리히영화제 뉴 월드 뷰 섹션(Neue Welt Sicht)에서 선보인 한국 영화 10편 <https://url.kr/zjwfluk>

3. 출판

『저주토끼』, 『파과』 등 번역 출간

폴란드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폴란드어판 『Przeklęty królik』 출간(10.25.). 장은진 작가의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를 시작으로 정보라 작가의 『재회』,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 등을 번역한 한국문학 번역가 마르타 니에비아돔스카(Marta Niewiadomska)가 번역을 맡았으며, 현지 출판사 타이푸니(Tajfuny)에서 출간돼 49PLN(약 1만 7,000원)에 판매 중. 2021년 『위저드 베이커리(Piekarnia czarodzieja)』로 현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구병모 작가는 현지 출판사 모바(Mova)를 통해 『파과』 폴란드어판 『STARSZA PANI Z NOŻEM』 출간(10.11.)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폴란드어판 『Przeklęty królik』
(Tajfuny)

해외통신원 리포트

폴란드 폴란드어로 번역돼 연이어 발간되는 한국문학 <https://url.kr/zxm4t7>

4. 케이팝

해외 음악 축제와 <뮤직뱅크> 월드투어에서 주목받는 케이팝

말레이시아

4. 《Kuching Borneo》(2023. 10. 8). Borneo Sonic Music Festival 2023 breaks numerous 'records', <https://kuchingborneo.info/borneo-sonic-music-festival-2023-breaks-numerous-records/>

효연, 태양, CL, 수호 등 케이팝 아티스트를 앞세워 개최된 '제1회 보르네오 소닉 뮤직 페스티벌(10.6~7, Borneo Sonic Music Festival)', 관객수 약 3만 1,000명을 달성하며 보르네오섬 역대 최대규모의 축제 기록을 경신. 현지 언론 《쿠칭 보르네오(Kuching Borneo)》는 “이번 축제는 4만석 규모의 돔구장인 사라왁 경기장(Sarawak Stadium)을 무대로 활용하며 대형 콘서트장의 부재로 고민하던 쿠칭 지역에 돌파구를 제시했다.”고 호평⁴



제1회 보르네오 소닉 뮤직 페스티벌 포스터
(보르네오 소닉 뮤직 페스티벌 페이스북 계정(@borneosonic.mf),
<https://www.facebook.com/borneosonic.mf/>)

멕시코

KBS <뮤직뱅크> 월드투어 일환으로 2014년 10월 공연 이후 9년 만에 멕시코시티 방문(10.22. 팔라시오 데 로스 데포르테스 Palacio de los Deportes). 좌석에 따라 티켓 가격이 최대 7,440MXN(약 55만 원)에 달했으나, 총 6팀(뉴진스, (여자)아이들, 있지, 스테이씨, 에이비식스, 더뉴식스(TNX))의 라인업으로 1만 5,000여 명이 관람. <Despacito>, <Señorita> 등 라틴 스페셜 무대를 선보이며 성료

해외통신원 리포트

말레이시아 케이팝 아티스트 내세운 보르네오 소닉 뮤직 페스티벌(Borneo Sonic Music Festival), 역대 축제 중 최다 관객 기록 <https://url.kr/6pudkn>

말레이시아 [언론분석] 보르네오 소닉 뮤직 페스티벌(Borneo Sonic Music Festival)에 대한 현지 매체와 관객들의 반응 <https://url.kr/4qvm2k>

멕시코 9년 만에 멕시코시티를 찾은 <뮤직뱅크> <https://url.kr/7budtx>

03

주목할 만한 한류 연관산업 이슈

음식

현지 식문화에 파고든 한국 음식



겐트 최초의 한국 슈퍼마켓
(Vlaanderenstraat 35, 9000 Gent)

벨기에

벨기에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르크(Dirk) 씨, 겐트 최초의 한국 슈퍼마켓 ‘서울 슈퍼마켓(Seoul Supermarket)’ 오픈. 현지 언론사 《뉴스블라트(Nieuwsblad)》는 디르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겐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소개함*. 《헛 라트스터 뉴스(Het Laatste Nieuws)》는 친절함을 지닌 디르크(Dirk) 사장님은 “주문을 통해 가게에 없는 상품까지도 찾아준다.”며 한국 슈퍼마켓이 문을 연 소식을 전함**

* 《Nieuwsblad》 (2023. 10. 10). Ex-militair Dirk (36) opent Zuid-Koreaanse supermarkt: “In vergelijking met Seoel lijkt Gent een dorp”, https://www.nieuwsblad.be/cnt/dmf20231010_96017189

** 《Het Laatste Nieuws》 (2023. 10. 11). Net open: Seoul Supermarket: “Als ik een product niet heb, zoek ik het voor de klant”, <https://www.hln.be/gent/net-open-seoul-supermarket-als-ik-een-product-niet-heb-zoek-ik-het-voor-de-klant~add80768/>



현지 쇼핑몰에서 열린 행사 ‘소주 밤 트레인’
(더 스프링 쇼핑몰 페이스북 계정(@the.Spring.Kuching), <https://www.facebook.com/the.Spring.Kuching/>)

말레이시아

대다수가 무슬림인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에서는 낮은 도수의 한국의 과일소주가 인기인 반면, 50도에 이르는 랑카우(Langkau)를 즐겨 마시는 원주민 생활상이 잔존한 동말레이시아(사라왁주, 사바주)에서는 높은 도수의 한국 소주가 인기. 특히 포용적 사회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말레이시아 젊은 세대는 한국의 폭탄주를 흥겨운 음주 문화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 동말레이시아 쿠칭에 위치한 더 스프링(The Spring) 쇼핑몰이 좋은데이와 함께 선보인 폭탄주 행사 ‘소주 밤 트레인(9.30, 10.7, Soju Bomb Train)’에 주목

해외통신원 리포트

벨기에 겐트 최초의 한국 슈퍼마켓 등장, ‘서울 슈퍼마켓(Seoul Supermarket)’ <https://url.kr/dlfawc>

말레이시아 새로운 음주 문화로 자리 잡은 ‘소주밤(Soju Bomb)’ <https://url.kr/1gedjn>

04

기타_문화정책

자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현지 박스오피스 역대 10위권에 애니메이션이 4편*이나 오른 자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잠재력에 주목. 정부기관인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의 추진으로 최초의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 영화 축제 (Malaysia Animation Film Festival, MAFF)' 개최(10.5.~25.). 말레이시아 최대 영화관 골든스크린시네마(Golden Screen Cinemas) 8개 지점에서 자국 애니메이션 영화 7편 상영.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인재 양성을 위한 보조금 사업 'DC3(Digital Content Creators Challenge)'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4위 <메카마토 더 무비(Mechamato The Movie)>, 5위 <에이전트 알리 더 무비(Ejen Ali The Movie)>, 6위 <보보이보이 무비 2(Boboiboy Movie 2)>, 9위 <우핀 & 이핀의 모험(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필리핀을 영화 제작의 중심지로... 제작비 최대 25% 환급 지원

필리핀

전 세계 45개국의 영화·영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참가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에서 필리핀영화개발위원회(FDCP)는 “문화적 가치를 평가해 필리핀의 문화를 홍보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라면 문화 보너스 인센티브(cultural bonus incentive) 5%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 이는 FDCP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촬영지 인센티브 프로그램(Film Location Incentive Program, FLIP) 일환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콘텐츠* 제작 시 지급하는 기존 인센티브(20%)에 추가 5%를 더해 제작비의 최대 25%(3,000만 페소 한도, 약 7억 8,000만 원)를 환급해 주는 정책임. 국제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만큼 FDCP 위원장 티르소 크루즈 3세(Tirso S. Cruz III)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대해 “필리핀과 해외 제작사의 윈윈전략”이라고 언급

* 영화(장·단편), TV 프로그램, VOD·웹·가상현실 콘텐츠

해외통신원 리포트

말레이시아 [문화정책/이슈] 디지털경제공사가 주관한 제1회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 영화 축제 <https://url.kr/na97sg>

필리핀 [문화정책/이슈] 필리핀,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확대 시행 <https://url.kr/s5g3r1>